

# 소상공인 지역상품 판로 확대 '맞손'

### 전주시-SK스토아, 업무협약 체결... 홈쇼핑 관련 전문 지원·홍보·유통채널 연계 협력

민선8기 최우선 과제 '강한 경제' 구현을 이르기 위한 전주시는 지역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대한민국 T-커머스 선도업체인 SK스토아와 손을 맞잡았다.

전주시와 SK스토아는 전주시장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 윤석암 SK스토아 대표이사, 김형욱 한국T커머스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지역상품 판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21일 체결했다.

T-커머스를 텔레비전과 상거래를 결합한 단어로, 기존 홈쇼핑과 달리 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전용 리모컨을 사용해 구매까지 한 번에 마칠 수 있는 양방향 구매 서비스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와 SK스토아는 가지고 있는 자원을 기반으로 전주지역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상품의 홍보와 유통채널 연계 협력에 힘쓰기로 했다.



전주시와 SK스토아는 전주시장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 윤석암 SK스토아 대표이사, 김형욱 한국T커머스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지역상품 판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21일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SK스토아는 전문 상품기획자(MD)와의 상품컨설팅, 상품별 전문 쇼호스트 배정, 최적의 방송시간대 편성 등 홈쇼핑 관련 전문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시는 지역 내 우수한 소상공인 상품 모집 등 지역 상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전반적인 지원을 담당할 예정이며, 이번 협약에 따라 향후 전주지역 업체에서 생산된 우수제품들이 홈쇼핑과 인터넷쇼핑 등을 통해 소개되고, 매출 증대와 기업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소비·유통환경이 급격하게 비대면·디지털화되고 온라인 판로 개척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판로 확대를 통한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고 소상공인들이 더욱이 성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SK스토아는 전문 상품기획자(MD)와의 상품컨설팅, 상품별 전문 쇼호스트 배정, 최적의 방송시간대 편성 등 홈쇼핑 관련 전문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 고향사랑기부제 활용 지역업체 성장 지원

### 전주지역 업체 대상 담례품 공급업체 모집 설명회 25일 개최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전주 지역업체의 성장을 지원한다.

전주시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담례품 공급업체 모집 설명회'를 오는 25일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현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

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이내의 담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시는 고향사랑기부제 담례품으로 지역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소개, 공급업체 공모에 대한 및 선정기준,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가 이뤄진다.

또 시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담례품 공급업체 공모기간을 거쳐 12월 2일부터 6일까지 담례품 공급업체 접수를 받는다.

모집 분야는 '농·축·임산물, 가공식품·공예품, 관광·서비스'의 3개 분야이며, 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

절차를 거쳐 전주의 특색이 담긴 경쟁력 있는 담례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담례품 공급업체의 조건은 농산물의 경우 전주에서 생산·채취된 원물이어야 하며, 가공식품·공예품도 전주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이 전주에서 생산·제조한 제품이어야 한다. 또 관광·서비스 분야도 전주에서만 통용돼야 선정될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담례품 공급업체 설명회를 통해 업체의 혼선을 방지하고, 보다 경쟁력 있는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전주덕진소방서, 대공간 지하층 피난 안전관리 강화 당부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고층건축물 대형 판매시설, 물류창고' 등 대공간 지하층 피난 안전관리 강화를 21일 당부했다.

지하층 화재는 화재 발생 시 열기와 짙은 연기가 건물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시야 확보가 어려워 대피와 소방활동에 큰 어려움이 따르며, 공동주택과 판매시설 등의 대규모 지하층은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자동차 등 가연물에 의한 다량의 연기 발생으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에 전주덕진소방서에서는 '고층건축물, 대형 판매시설, 물류창고' 등 대

공간 지하층의 화재 발생 시 피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당부사항을 안내하고 나섰다.

대공간 지하층 피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요 당부사항에는 '지하층 바닥면 피난유도선, 픽토그램 등 근무자 대피동선 도식화, 소방시설 배치도 부착, 소화전 위 천장에 위치 표시 설치, 지하주차장, 사무실, 대기실 등 주요 장소 피난 안내도 부착, 출입구 상부(1.5m 이상), 하부(1m 이하)에 대형 피난구유도등 설치, 공기흡입기 등 확대 설치, 전기차 충전시설, 물품 하역장, 분리수거장 주변 지능형 CCTV 설치' 등이 있다. /김영태 기자

# 전주완산소방서, 어린이집 원아 대상 소방안전 체험교육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장수) 안전체험교실에서는 21일 효천하늘어린이집 소속 유아 25명을 대상으로 'OPEN 소방서 안전체험교실'을 진행했다.

김장수 완산소방서장은 "이번 견학은 '안전체험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안전의식을 키우고 소방공무원 직업에 대한 진로 탐색의 시간으로 마련했다"고 전했다.

'OPEN 소방서 안전체험교실' 주요 내용으로는 '소화기·소화전 사용법 교육, 화재 시 대피방법, 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 등 기본응급처치 교육, 소방서 견학 관람, 소방차 탑승 체험, 방화복·헬멧 착용(소방관 체험)' 등으로



다양한 현장 위주의 교육을 담고 있다. 김장수 서장은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는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에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과 관련기관 종사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전주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워크숍'을 21일 개최했다.

#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 대응 방안 모색

### 전주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워크숍 가져

앞으로 전주시 여성폭력과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동·여성 보호시설 종사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전주시는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에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과 관련기관 종사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전주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워크숍'을 21일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아동·여성보호 관련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안심사회인정함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미경 한국성폭력

상담소사는 '여성폭력 2차 피해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임현주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상담변호사와 우정희 현장상담센터 부소장, 한신시 전주 여성쉼터 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도 펼쳐졌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에는 안전하고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현재 1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아동·여성 폭력예방 캠페인 및 교육, 취약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해 힘쓰고 있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 겨울철 주거취약계층 주택 안전 점검 추진

전주시는 주거취약가구의 주거 안전을 위해 주택관리사업 추진에 나섰다.

시는 올 연말까지 가스사고와 동파 사고에 취약한 단독·다세대·연립주택에 거주 중인 차상위 이하 주거취약계층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안전 및 수도관동파 방지 등 겨울철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점검 및 시설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동절기 주거취약계층 주택관리 사업의 최우선 목표를 '안전사고 예방'으로 정하고, 35개 동 주민센터와 연계해 맞춤형 주거안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개별적으로 LPG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가스누출검침 및 가스타이머 설치 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노후수도배관의 보온시공과 동결시 해동서비스도 제공된다.

배회근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전주시민의 동절기 가스 화재나 수도관 동파로 인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동주민센터와 연계해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가구를 적극 발굴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동절기 시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안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